

롯데백화점·광주신세계 명품점 1년 성적 보니

불황도 메르스도 KTX도... ‘명품 코너’ 비켜갔다

매출 전년비 61% 상승...수도권 소비 증가 1.1%로 유출 미미
중 관광객 1000여명 방문...1~5월 매출 전년 전체 매출과 맞먹어

경기 불황도 명품 시장은 비켜갔다. 호남선 KTX(송정~용산역) 완전 개통으로 역의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의 소비도 늘고 있어 광주지역의 명품시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백화점 등지의 명품 시장과 지역 재래시장을 연계해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판매 전략 등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의 해외패션(명품) 상품군 매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61%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10월 백화점 1층에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보메르시에 등 명품 시계 입점을 시작으로 이후 작년 12월 5일 페라가모 매장과 12월에 프라다와 미우미우,

몽블랑 입점을 통해 해외명품 브랜드 확충을 마무리했다.

백화점 1층에 있던 기존의 화장품 매장을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프라다, 페라가모, 미우미우, 몽블랑,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보메르시에 등 해외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한 것이다.

이후, 1년간의 성적으로 종합해 보니 경기 불황에도 명품의 판매가 61% 늘어 난 셈이다.

이들 매장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몰려들고 있다. 이 백화점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련카드 매출 기준)이 지난해 전체 매출실적과 맞먹을 정도여서 급격히 커진 유커 파워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9월 매출 또한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뜸 걸렸던 6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348% 신장하였다.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유커 전문 여행사와 제휴를 시작한 올해 4월 이후부터 매월 800~1000명가량이 백화점을 찾고 있다.

특히 시계 등 명품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신세계백화점은 6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의 매출이 지난 2년간 매달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3개월 연속으로 월별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 2년간 월별 매출에서 역신장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백화점 품목은 명품 시계가 유일하다는 게 신세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명품 시장은 이제 단순히 사치품이 아닌 지역 유통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명품 시장은 KTX 개통으로 역의 유출을 막고, 소비력이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 상품이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역외유출 매출이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서울 등지에서 쇼핑을 하는 이들 소비자들이 이 백화점의 매출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을 이끄는 소비자들이 명품 시장이 좁은 광주 대신, 서울 등지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 광주시장의 전체 매출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는 말이다.

반면, 지난해 백화점 1층을 해외명품 상품군으로 꾸민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KTX 완전개통 이후 광주지역 소비자의 수도권 점포에서의 소비 증가는 1.1%로 나타나 역외유출이 크지 않았다.

지역 유통가 한 전문가는 “과거 명품시장에 대해 과소비 등 금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풍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상품군이 됐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광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명품시장을 키우고 면세점을 유치한 뒤 명품시장과 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쇼핑 루트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이트진로 ‘오너 3세’ 경영체제

장남 박태영 전무 부사장 승진



박태영 부사장



성동욱 상무보

하이트진로가 ‘오너 3세’ 경영 체제를 갖췄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전

략본부장이었던 박태영(39)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박태영 부사장은 창업주 고(故) 박경복 회장의 손자이자 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은 2012년 4월 경영관리실장(상무)로 경영수업을 시작한 뒤 8개월만에 전무로 승진해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왔다.

한편, 경영전략실을 맡아온 최경택 상무(51)는 전무로 승진했으며 성동욱 광주지점장이 상무보로 승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신임 대표에 임훈 상무



임 훈 대표



유신열 전 대표

광주신세계 신임 대표이사에 신세계 상품본부 식품담당 임훈(53) 상무 선임됐다.

임 신임 대표

표이사는 서울 출생이며 건국대학교 축산학을 전공하였으며 1989년 삼성그룹 공채로 신세계에 입사했다.

신세계 상품본부 식품바이어(과장)를 시작으로 백화점 식품부문 기획업무에 도맡았다. 또 백화점 신규사업팀장으로 신규점 및 신사업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는 식품 및 신사업 분야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자로 단행된 신세계 그룹 임원인사에 따라 전 광주신세계 유신열 대표이사는 신세계 강남점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광주신세계 대표로 부임하여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상생경영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유통기업으로서의 광주신세계 위상강화에 기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5일 개관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의 ‘KJ 원더랜드’는 썬다, 루돌프와 트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겨울왕국으로 여행은 듯한 기분을 선사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동화 속 눈의 나라 ‘KJ 원더랜드’ 개관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5일,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 속 눈의 나라를 재현시킨 ‘KJ 원더랜드’의 개관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본점 1층에 약 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개관한 원더랜드는 썬다, 루돌프와 트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다. 또한 눈으로 덮힌 기차 마을과 북극곰, 이글루 동굴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겨울 왕국으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선사 할 예정이다.

원더랜드의 관람비용은 무료이며,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10명 이상 유치원 등의 단체 관람시에는 예약이 필요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날 원더랜드 개관을 기념해 광주은행 임직원들 및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본점 오픈하우스 행사를 갖고 1000여명의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원더랜드를 관람했다. 또

한 은행장실, 임원실, 사무실, 회의실, KJB금융 박물관 등을 모두 개방해 임직원 가족들에게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김한 은행장은 “겨울을 테마로 정성들여 만든 원더랜드에 많은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써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고속, 재중 모범기업 우수상



금호고속 해외사업담당 김영호 상무(왼쪽)와 김장수 주중대사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재중 한국 CSR 모범기업’ 시상식에서 지역공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고 중국한국상회와 KOTRA가 지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금호고속은 중국 내 도로교통 안전관리시스템 정착, 교통질서 캠페인, 한철활동, 장학금지원 및 불우아동돕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활동으로 CSR 모범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장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7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5	7	14	26	34	3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63,005,600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4,182,186		54
3	5개 숫자일치			1,304,450		1,829
4	4개 숫자일치			50,000		91,171
5	3개 숫자일치			5,000		1,493,041

울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